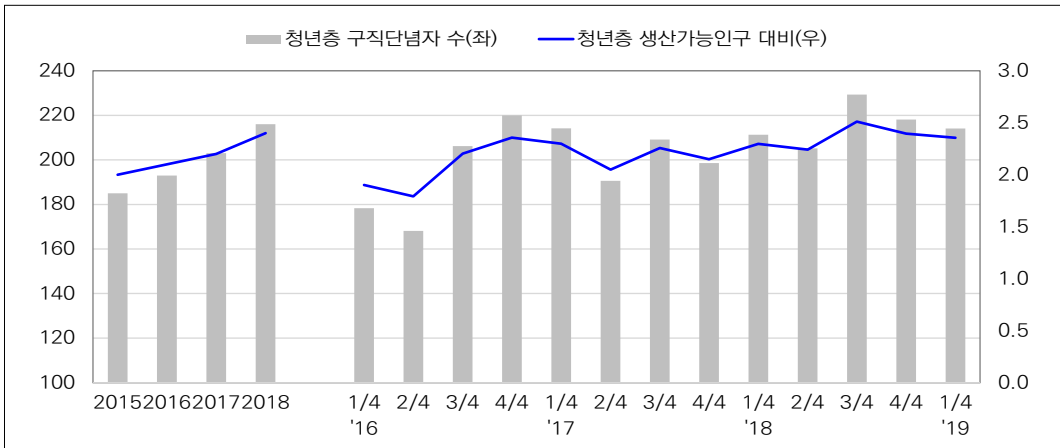


청년층 구직단념자 현황

○ 2019년 1분기 우리나라 청년층(15~29세) 구직단념자¹⁾는 214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3천 명 증가하였으며, 청년층 생산가능인구 중 2.4%를 차지함.

[그림 1] 청년층 구직단념자 추이(좌: 연간, 우: 분기)

(단위: 천 명,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성별로는 남성 116천 명(4.7%), 여성 99천 명(4.2%)로 여성보다 남성 구직단념자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음(표 1 참조). 학력별로 나누어 보면, 고졸 이하 청년층의 구직단념자가 90천 명(2.2%), 초대졸 35천 명(17.0%) 그리고 4년제 대졸 이상은 90천 명(21.2%)으로 상대적으로 4년제 대졸 이상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연령별로는 20~24세 청년층

- 1) 구직단념자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 가능성이 있으나, 지난 4주 동안 노동시장적 사유(1. 전공, 경력에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2. 원하는 임금수준, 근로조건이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3. 근처에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4. 교육, 기술, 경험이 부족해서; 5. 고용주가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다고 생각할 것 같아서; 6.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 이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사람을 뜻함.
- 2) 해당 문단의 () 비중은 각 항목별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대비 구직단념자 비중임.

이 87천 명(5.8%), 25~29세가 123천 명(14.8%)으로 20대 중후반의 비중이 높은 편임.

〈표 1〉 청년층 구직단념자 현황

(단위 : 천 명, %, %p, 전년동기대비)

		2015	2016	2017	2018	2017 1/4	2018 1/4	2019 1/4	2019-18 1/4 증감
성별	남성	104 (4.0)	109 (4.2)	115 (4.5)	118 (4.7)	119 (4.6)	123 (4.9)	116 (4.7)	[-7] [-0.2]
	여성	82 (3.2)	85 (3.4)	88 (3.6)	99 (4.2)	95 (3.9)	89 (3.7)	99 (4.2)	[10] [0.5]
학력별	고졸 이하	81 (1.8)	83 (1.9)	81 (1.8)	84 (2.0)	91 (2.1)	79 (1.8)	90 (2.2)	[11] [0.4]
	초대졸	34 (16.7)	31 (16.9)	34 (18.2)	33 (17.0)	34 (17.4)	38 (19.7)	35 (17.0)	[-3] [-2.7]
	4년제 대졸 이상	71 (17.1)	79 (19.8)	88 (22.2)	98 (24.7)	89 (21.8)	95 (24.1)	90 (21.2)	[-5] [-2.9]
연령별	15~19세	8 (0.3)	8 (0.3)	9 (0.3)	6 (0.2)	12 (0.4)	6 (0.2)	4 (0.2)	[-2] [0]
	20~24세	76 (5.2)	75 (5.1)	74 (5.0)	79 (5.2)	82 (5.4)	67 (4.4)	87 (5.8)	[20] [1.4]
	25~29세	101 (12.6)	110 (14.4)	120 (14.9)	131 (16.6)	121 (15.0)	138 (16.9)	123 (14.8)	[-15] [-2.1]
전 체		185	193	203	216	214	211	214	[3]

주 : () 안은 각 항목별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가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학력에 상관없이, 구직단념자 중 지난 4주간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이유로 ‘교육, 기술, 경험이 부족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계속하여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표 2 참조). 2018년 기준, 고졸 이하의 경우 34.7%, 초대졸은 31.7% 그리고 4년제 대졸은 35.1%로 나타남.
 -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이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다’고 응답한 청년층은 고졸 이하 26.6%, 초대졸은 27.2%이며, 4년제 대졸 이상 청년층은 33.3%로 2017년 대비 7.3%p 증가하였음.
 - 고졸 이하 청년층의 11.0%, 초대졸의 16.5%가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다’고 응답하였으며 점차 비중이 감소하는 흐름을 보임. 반면 4년제 대졸 이상은 2018년 19.1%로 전년대비 3.2%p 증가함.

-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고졸 이하(19.8%)와 초대졸(22.5%)이 높게 나타나, 초대졸 이하 청년들은 일자리의 양적 측면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음.

〈표 2〉 청년층 구직단념자 중 지난 4주 동안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사유 비중

(단위 : %)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거리가 없을것 같아서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이 맞는 일거리가 없을것 같아서	근처에 일거리가 없을것 같아서	교육, 기술, 경험이 부족해서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다고 고용주가 생각할것 같아서	이전에 찾아보았지 만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전 체
고졸 이하	2015	12.5	35.2	3.7	25.6	0.1	23.0	100.0
	2016	10.7	33.7	1.8	30.0	1.0	22.9	100.0
	2017	13.0	31.4	4.0	30.9	0.6	20.2	100.0
	2018	11.0	26.6	8.0	34.7	0.0	19.8	100.0
초대졸	2015	14.7	31.1	0.9	30.5	0.0	22.6	100.0
	2016	11.4	28.0	1.6	38.8	1.0	19.5	100.0
	2017	24.9	33.9	1.8	24.6	0.3	14.9	100.0
	2018	16.5	27.2	2.7	31.7	0.0	22.5	100.0
4년제 대졸 이상	2015	19.0	19.9	1.0	11.6	0.0	19.1	100.0
	2016	14.6	22.1	0.9	24.1	0.1	17.5	100.0
	2017	15.9	26.0	0.9	33.4	0.0	11.9	100.0
	2018	19.1	33.3	0.6	35.1	0.0	10.2	100.0

주 : 연도별 비중과 분기별 비중이 크게 차이 나지 않았으므로 본고에서는 연도별 비중만을 제시하였음.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 청년층은 과거에 비해 취업 시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자리보다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의 질적인 부분을 더 높게 고려하거나, 본인의 학력이나 기술 등에 부족함을 느끼는 심리적인 요인 또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특히 4년제 대졸 이상의 경우 지난 4주간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이유로 2018년 기준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다는 비중이 19.1%(2015년 대비 0.1%p↑)인 반면,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다’거나 ‘교육, 기술, 경험이 부족해서’라는 비중은 68.4%(2015년 대비 36.9%p↑)임. **KLI**

(김소라, 동향분석실 연구원)